

여러 번 말한 대로 막 8:22-10:52 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17, 21)에 대한 우회적 대답이자 보충설명에 해당한다. 이 중 세 번에 걸친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선언(8:31; 9:31; 10:33-34)은 문학적으로 평행 구조를 이루는데, 제자의 길(道)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이것을 세 번에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십자가와 부활’(8:31-9:29), 그리고 연이어 ‘섬김과 나눔’(9:30-10:31), ‘눈 뜨고 예수 살기’(10:32-52)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갈 6:14), 십자가에 담긴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했다(고전 1:18-31). 복음서에도 십자가는 빼 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한다(마 16:24; 마 8:34; 눅 9:23). 고난 주간 때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행렬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그 고통을 몸소 자신의 몸에 체험하곤 한다. 교회 예배당에는 늘 십자가가 걸려 있고, 독실한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8:34).
예수를 따르는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설정한다. 하나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가능할까? 내가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나는 누구인가? 모든 종교와 철학이 던지는 궁극적 물음인데, 이는 현재 내가 인식하고 지키려는 나는 참 ‘나’가 아니라는 이해를 반영한다. 세상과 관습이 정해 놓은 운명적인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는 심리학 용어로 에고(Ego)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본래의 나, 참나(진아, 眞我)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해에 따르면 여기에 하느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한다(요 14:17, 26; 15:26; 16:13). 하느님과 하나됨이(요 14:20) 비종교적 언어로는 자아(Self) 발견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떨쳐 버려야 할 자신은 참나(Self)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들어진 나(Ego)다. 세상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허우적거리는 나다. 그런 나를 완전히 떨쳐 낼 수가 있을까? 바울의 표현을 빌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전 5:10).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개하고(메타노에오, μετανοέω)—마음 씌를 바꾸고—하느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이다(1:14). 복음서가 제시하는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길이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일로 표현한다. 자기를 부인함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하나의 연속적 사건이다. 자기를 부인하면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는데, 그 자리를 예수의 가르침으로 채운다. 어린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면 아이가 운다. 그럴 때 손에 사탕을 쥐어준다든지 하면 아이가 울음을 멈춘다. 회개만 하고 그 자리를 예수의 복음(가치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영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법이다(눅 11:24-26).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회개와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자도(道)의 모습이다. ‘참나’(Self)가 드러나도록 사는 생활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로마통치 하에서 지배체제는 반정부 대모를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나중에는 십자가가 모자랄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수가 친절하게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스스로 마련해 다니라고 했을까? 잔혹한 처형수단으로써의 십자가는 없었으면 더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을 신자들에게 매일 지도록 요구한다면, 기독교는 대중의 환영을 받을 수가 없다.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그 십자가가 주는 상징적 의미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십자가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운명을 뜻할 수도 있다. 주어진 운명은 내 뜻과 상관 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어느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사회적 조건과 경제적 환경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어떤 악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길, 사상, 가르침을 선택하고 살아감을 의미한다. 나는 이것을 소명(召命)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 속에서 이루며 살도록 부름 받은 그것이 내 소명이고 내 십자가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내가 지어야 하는 짐(소명)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떠 넘길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조건을 탓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따르길 희망한다.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일은 정치적 상황, 경제적 조건,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악조건 속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예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수 없이 만난다. 예수를 따름에 단지 조건이 붙는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과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는가 혹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참나’는 가려지고 에고 놀음에 빠져 해매는지가 관건이다.

부활의 의미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 부활의 개념을 간단히 엿보았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제거한 요한이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죽은 요한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보았다(6:14). 변화산 체험 이후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엿본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 죽은 자와 산 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죽고 삶을 말하기 때문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나와 관련되지 않은 예수의 부활은 무의미하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자.

저희가 산에서 내려 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ei mh ὄταιν*)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9:9)

우리 말 번역은 이를 직설법(indicative mood)으로 이해한다: “살아날 때까지는”(개역, 표준 새번역);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공동번역). 영어 번역도 별반 차이가 없다: till/until (KJV, RSV, NIV). 그렇지만 헬라어 본문은 직설법이 아닌 가정법(subjunctive mood)을 쓰고 있다.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번역할 때 예수의 ‘살아남’은 기정사실이 된다. 단지 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헬라어 가정법은 미래의 사건의 가능성만 열어 놓고 있다. 예수가 살아 날 수도 있고 살아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고 하면, 직설법으로 이해할 때 예수의 살아남은 예수 개인의 일이 되지만, 가정법으로 이해할 때 예수의 살아남은 제자들 몫이 된다. 예수가 제자들 마음 속에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살아날 때까지는”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묻게 된다. 그럼 그 동안은? 그 때까지는 뭐하고 지내나? 혹은 (예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진정한 정체는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는다”(Boring, 270)는 주장이 메시아 비밀 가설을 반영한다면, 지난 100여 년 간의 학문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다. 본문에서 예수의 살아남은 예수 이야기라기 보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살아나지 않는 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명령은 언행을 주의하라는 경계의 말(*διαστέλλω*)이다. 우리들 삶 속에 예수의 신학을 온전히 되살리지 못하는 한(9:9; 6:14 참조), 예수의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산 위에서 무엇을 경험했던 간에—영적 체험과 신비한 환상—그 경험을 예수의 신학으로 재조명하라는 말이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종교(으뜸 가르침)기 때문이다. 일반적—혹은 특별한—종교 현상이 예수의 가치관, 철학의 틀 안에서 재조명되고, 정리되고, 이해될 때 비로소 기독교를 말하고 교회 간판을 걸 수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τὸ ἐκ νεκρῶν ἀναστῆναι*)이 무엇일까?(9:10) 가까운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다면, 이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자의 몫이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의 숙제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과 신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남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후, 제자들은 무서워 집 안에 꼭꼭 숨어 있었다. 무덤에 갇혀 있는 꼴이다. 이것 역시 죽은 자의 모습이다. 이를 깨치고 일어남을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다고 적는다(마 27:52-53). 죽은 자 가운데—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예수의 가르침, 하느님의 일(8:33)을 떠 올릴 수 있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린 왜 잘 안돼나? (9:14-29)

예수와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남은 제자들이 군중에 쌓여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을 본다. 서기관은 이미 앞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경계할 때 나왔던 인물이다(9:11). 예수는 서기관들의 그리스도 이해에 도전을 한다(12:35). 마가복음에서 서기관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함께 지배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8:31; 11:27; 14:43, 53; 15:1). 제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오고, 제자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9:14), 예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뿐이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9:16). 제자들은 유구무언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오히려 군중들이 답한다. 병어리, 귀머거리 귀신들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데, 여기서 병어리는 한 편으로 제자들 모습이다. 병어리 신앙이다. 서기관들과 변론의 내용이 나올 법한 자리에 병어리, 귀머거리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은 어째서 귀머거리, 병어리 들린 영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는다. 이유인즉 그들 스스로가 병어리요 귀머거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들어야 할 소리—주위의 아픔—를 듣지 못함이 귀머거리고, 당연히 입 밖에 내어 말해야 할 소리를 내지 못함이 병어리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 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9:1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17, 21)에 비견되는 예수의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한가한가? 아이가 거품을 물고 곧 넘어갈 지경인데 예수는 아이의 병을 묻고 있다. 그럼 그 의미는? ‘어릴 때부터’(9:21)란 말을 신앙에 견주면 모태 신앙—‘못해’(?) 신앙—에 해당한다. 세상의 믿음, 복음,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9:17)은 하느님의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을 때 한 말(4:40)과 하느님의 믿음(11:22)을 가지라는 말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느님의 믿음이 아닌 세상의 믿음—가치관, 이데올로기—을 따라 살았기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 게임의 법칙이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한 체제에서 제자들은 서기관과 맞서 이미 지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신이 귀신을 몰아낼 수는 없다(3:23-27).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더 강한 자의 힘이 필요하다. 세상의 믿음을 이기려면 하느님의 믿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믿는 자—하느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다.

제자들이 묻는다. 왜 우리는 귀신—더러운 영,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을 쫓아낼 수가 없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를 한다 함은 때를 써가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내 생각을 하느님 생각에 맞추는 작업이다.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드러나게 한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8:33).

결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고난의 생활을 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우리들의 신앙을 반영한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살 것인가? 얼마 전 고난 주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이후 꽃다운 아이들의 때죽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가슴 속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십자가(소명)를 내던진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바다에 던진 이도 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8:35). 따로 설명이 필요할까? 사람들 마음 속에 남겨진 이 교훈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운동하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크리스천, 곧 예수 제자의 삶이다.

생각해 보기

1. 내게 있어 십자가의 의미는? (8:34)
2.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가?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답하라.)